

신앙고백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다함께

-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 2 이 세상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주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삼시다
- 4 주께서 심판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삼시다

기도 말은이

(기도순서는 자녀, 또는 가정의 연소자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전염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 나라와 세계에 평화를 주옵소서. 기근과 분쟁으로 분열되어가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소망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터에서 일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 하옵소서.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닥쳐올 때 그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임재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시어 다음세대와 이 나라가 믿음의 반석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삶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130:1~8 다함께

(설교문은 인도자가 읽거나,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말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 나타난 7개의 참회 시 가운데 인간의 범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시입니다. 이 시는 요한 웨슬리가 회심하기 전날, 이 시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아 회심의 준비를 했다고 해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아주 깊은 수렁, 고난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시130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시편 기자는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1절에 나오는 ‘부르짖는다’는 말이나 2절에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한다, 기도한다’가 됩니다. 시편의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일입니다. ‘여호와와 의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시34:15,17)라고 했습니다. 위기는 늘 존재하지만, 위기의 순간, 비상 탈출구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도 하나님을 향해 비상구를 열지 못하고 삽니다.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책을 쓴 레이븐 힐은 ‘교회를 조직하고 헌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역동적인 신앙의 2가지는 비전과 열정인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기도의 밑바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인생의 깊은 곳, 절망의 자리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시34:6).

2. 시편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죄악을 지켜보시는 여호와라고 했고 4절에서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과 죄를 살펴보신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포인 것을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시편 속에 빠지면 3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자기의 고통과 감정만 바라보고 서운해 하고 남의 아픔이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실수가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고 힘든 환경만 보면서 절망하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깊은 시련의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남의 탓이나 자기의 상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 되고, 고만했는가를 살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시40:2)입니다.

3.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본문 6절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밤새 자기 지역을 지키면서 새벽 동터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풍성한 속량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지적인 징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물리학에서 임계점(the critical poin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계점을 넘으면 바로 형체가 바뀌고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 응답의 임계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6)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해결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봉 헌 다 합 계
봉 헌 기 도 가 족 중

(헌금은 추후 주일예배 참석 시 또는 교회별 안내에 따라 봉헌하시면 됩니다.)

찬 송 401장 다 합 계

1.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2.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3.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후렴)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 하소서

주 기 도 문 다 합 계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1인 또는 여럿이 드리는

가정 예배문

 한마음교회